

◆ 독일 Hermes, 2001년도 업무실적 발표

독일 최대의 상업보험회사이자 연방정부의 공적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ermes는 2001년 중 166억 유로의 수출보험 인수실적을 기록하였다. 이는 전년 대비 15% 감소한 것이나 독일 총수출액의 2.6%에 해당하는 것이다. 인수액의 감소는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수출액 감

소와 독일 수출업체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연기 등에 기인한다.

Hermes는 1999년 16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러시아에서의 보상금 회수 등으로 3억 8,800만 유로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.

Hermes의 2001년도 수출보험 인수실적

구 분	1999년	2000년	2001년
수출보험인수한도액	112,484	112,484	117,597
신규보험인수액	13,630	19,497	16,563
- 개발도상국 비율(%)	86.3	87.2	83.7
- 중동부유럽 비율(%)	11.7	9.7	14.1
- 선진국 비율(%)	2.0	3.2	2.2
총수출대비 부보율(%)	2.7	3.3	2.6
당기순이익	110.1	34.5	388.1

금액 단위 : 백만 유로

Hermes는 중소기업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, 신청건수 기준으로 수출보험은 75%, 해외투자보증의 경우 29%가 중소기업이다. 향후 Hermes는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출보험과 해외투자보증을 혼합하여 지원하고, 외국 수출신용기관과의 협조유자 및 재보험을 통하여 수출업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한편, Hermes의 2001년 중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해외투자보증 지원실적은 27억 유로이고, 주요 보증 분야는 인프라, 금융 및 차량설비시설이었으며, 필리핀, 크로아티아, 중국, 남아공 및 멕시코 등이 주된 보증 수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.

【프랑크푸르트사무소】